

축협은 유통·가공에 신경써야



박 철 곤
(삼광중돈장 대표)

86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 양돈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술면에서나 규모면에서나 다른 선진축산국에 못지않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가고 있다.

양돈업이 발전한 미국, 캐나다등을 돌아봤지만, 우리나라의 양돈산업과 비교해 볼때 이제는 결코 우리의 수준이 그들의 수준보다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생산성에서 우량돈 개량보급과 산자수와 육성율, 그리고 모돈 회전율, 환경관리, 방역관리, 대체사료 개발에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비육돈 뿐만 아니라 종돈까지도 멀지않은 장래에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성장의 힘은 양돈관계자 전체가 뜻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 농장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지만 양돈기술이나 정신은 월간 양돈지의 보급으로 전국이 가까운 이웃이 되고있다. 협회에서는 축산법의 개정, 특정건축물(축사) 과태료 인하, 백신의 제조, 유통,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각 지부의 결속, 돈육소비 홍보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하여 양돈산업의 발전에 많은 일을 하고있다. 축협중앙회에서는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양돈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백지화해 주길 바란다.

축협에서는 농민이 할수없는 유통이나 가공 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농축산물의 수입을 억제해야



이 경 재
(포천양돈대표)

그동안 호황과 불황의 연속속에 우리 양돈인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왔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생산자 스스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이때에 양돈인의 한사람으로서 새해에 바램이 있다고 좀더 정확한 관측 통계 자료와 국제 경제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억제 조치가 필요하며 유통구조 개선정부 주도형의 축산물 사육 철폐 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양축농가가 항시 불안한 속에서 양질의 돈육을 생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 속에 양돈인 스스로는 과거의 시세를 쫓아 사육하던 생각을 빨리 버리고 값싼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양돈인 모두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지방 도축장에도 박피시설 설치를



노 선 량
(명공농장대표)

대망의 아세안 게임 개최로 밝아올 86년을 맞아 전업양돈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 몇가지 바라는 바가 있다.

첫째, 축산정책의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으로 국민 보건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해 주기 바라며, 양돈업의 계열화를 더욱 다듬어 대기업은 육가공업의 발전과 우수종돈 육성 분야에 주력하여 전업농가나 부업농가의 영역을 보호·육성해 주기 바란다.

둘째, 공인 종돈능력 검정소 역시 85년도에 이미 16차의 우수종돈 분양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검정수치의 과학적인 측정으로 양과 질을 높여 주기 바란다.

셋째, 협회에 바라는 바는 '85년도의 호황으로 늘어나는 가임모돈의 증가추세를 볼때 '79년, '83년도의 불황을 겪은 본인은 마음 한 구석Pig 사이클의 하강곡선을 그려보지 않을 수 없다. '86년도에도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루려면 돈육소비 촉진과 더불어 우리 양돈인들 또한 무모한 모돈수 증가를 억제해야 하겠다.

다양한 요리법의 개발과 이의보급, 그리고 대도시 도축장에서의 박피시설을 우리 각 지방 도축장에서 도입하여 박피제도가 전국에 실시되기를 바란다.

축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김 락 기
(제일농장)

과거 우리나라는 많은 양의 축산물을 수입하여 부족되는 물량을 충당하여 왔다.

생산물량이 모자랄때는 수입물량에 의한 가격조절로 별 무리가 없었지만 일시적인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에는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이 때문에 수년전 돼지가 무척이나 천대받은 때가 있었고 지금의 소값이 그렇다.

이제 우리나라도 모든 육류의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생산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본다. 앞으로는 생산량의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거나 육류를 부득이 수입해야 할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제 양축가에게는 생산원가의 절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이다. 한때의 가격 상승을 보고 거액을 투자할 그런 시기는 지났고 평생사업이란 직업의식을 갖고 우수한 종축의 확보와 효율적인 경영관리로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 정확한 통계조사에 의한 생산량의 조절 등 정부측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86년도 새해에는 축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